

시간안내

# 상하이희망도서관 9월 새 책

| 2024 8  
 <이중 하나는 거짓말>은 고등학교 2학년인 세 아이가 몇 가지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한 후 서서히 가까워지며 잊을 수 없는 시기를 통과해나가는 이야기이다. 소설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시간대는 두 달 남짓한 짧은 방학이지만, 우리는 세 아이의 시점을 오가면서 서서히 진실이 밝혀지는 독특한 구성을 통해 현재에 다다르게 된 인물들의 전사를 총체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 2024 8  
 출간된 작품마다 독자들을 '정유정 월드'로 이끌어온 소설가 정유정의 신작이 <영원한 천국>은 옥망 3부작의 두 번째 책이다. 정유정의 선풍적인 팬을 끌어들여주는 것은 인간의 욕망의 끝, 그 아득한 지경이다. 과학의 발전으로 인류의 욕망은 점점 더 쉽고 간편하게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모든 가능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면, 최후에 남는 인류의 욕망은 무엇일까.

| 2024 7  
 한겨레문학상이 스물아홉 번째 수상작, 총 240편의 응모작 중에서 <멜라닌>은 유일하게 심사위원 전원의 지지를 받으며 최종심에 올랐다. <멜라닌>은 파란 피부로 태어난 한국 베



트남 혼혈 소년이 미국 이민을 통해 디아스포라적 상황을 겪는 성장 소설이다. 피부색과 인종으로 인해 일상적으로 차별과 멸시를 받는 과정이 9·11테러, 총기 난사 사건, 한국 대통령 탄핵 등의 역사적 사건들과 촘촘하게 맞물리며 펼쳐진다.



| 2023 1  
 <자발적 방관 육아>는 부모가 느긋하고 여유롭게, 그러나 전략적으로 방관하자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에 몰입하게 되는 놀라운 과정과 성공 사례를 담고 있다. 생활도, 공부도 스스로 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부모, 천천히 아이를 기다려주고 싶은 부모,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싶은 부모라면 육아로부터 정서적 해방감을 느끼는 동시에 아이가 스스로 삶을 개척해나가는 놀라운 변화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허스토리 in 상하이

# 애들이 나에게 예쁘게 말해 줬으면 좋겠다

난 아침부터 감정 조절에 실패했다. 평소보다 고데기로 웨이브를 잔뜩 넣고 화장하고 흰색 헤드폰을 스타일리시하게 쓰고 등교하겠다고 나타난 고3 딸을 보며 순간 욕하여 생각과 말이 동시에 나와버렸다.

"네가 지금 이럴 때냐?"  
 "패션쇼 하러 학교 다녀?"  
 가족 간에 매일 만나고 헤어질 땐 꼭 좋은 모습으로 이쁘게 말하다가 나의 좌우명인데, 그 찰나에 깨어 있지 못해 어리석은 언행을 또 하고 말았다. 공부를 그러저럭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았던 셋째 아이였는데 중학교3년을 코로나로 흐지부지 지나 버리더니 지금은 공부를 제대로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IB 자기주도 학습을 그 전에 7,8년간 해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나 나의 오산이었다. 공든 탑이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순간이었다. 중학교 3년이 그 애의 인생에서 짧지만은 않았다. 50여년 산 나한테나 짧지.

애들 셋을 전 과정 IB 학교에 보내면서 과외 따윈 절대 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큰애 둘째도 정말 급한 12학년때 한 두 번 일대일 과외 말고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IB학교에서도 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 과외를 받고 있었다. 특히 한국학생들은 100% 받았다. 나도 이번엔 정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방학때만 수학 일대일 과외를 시켰다. 하지만 두 여름 방학동안 과외 받았던 딸이 성적이 그다지 오르지 않았음에도 이제 받지 않겠다고 혼

자 할 수 있다고 했다. 본인이 하기 싫다는데 억지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늘 책상에 앉아 하루 종일 뭔가를 하고 나는 잔소리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럼에도 가끔 이렇게 상처주는 말을 한 것만 딸은 기억에 남겼다. 공무원이었던 내 친구가 자기딸이 고3때 세종시로 발령이 나서 일주일에 한 번 밖에 못 만나는데 지나고 보니 그게 신의 한 수였다고 하더라는 말이 생각났다. 나도 안다. 혼자 놔두면 알아서 누구보다도 자기가 알아서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할 것이라는 것을. 조언을 구할 때 생각했던 것을 말해 주면 결과적으로 효과가 제일 좋다는 것을...

고3인 내 딸은 여전히 농구 배구팀에 합류해 체육 활동도 열심히 하고 SNS와 전화로 끊임없이 친구들과 소통도 하고 친구들의 고민상담도 해주느라 바쁘다. 자기 밥그릇도 못챙기면서 누구를 챙기려는 건지... 바라보기 힘들고 부정적 감정이 올라오면 난 그냥 자리를 열린 피한다. 잔소리하면 서로 기분만 상하지 좋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최소한 모녀간에 관계가 나빠지지 않으면 그게 그나마 좋은 거니까.

유명 강연에서 누가 그랬다. 자식에게 지금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가 늙었을 때 자식이 나에게 대하는 방식이라고. 늙고 쇠약해진 부모를 자식이 챙겨야 할 때가 됐을 때 신경쓰기 귀찮고, 다칠까 봐 그냥 방에서 티비만 보라고 아무것도 하지말라고 한

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학원에 보내고 혹은 방에 들어가 앉아 가만히 공부하는 것만 보면 결과야 어찌됐건 상관없이 마음은 편해지는 것처럼...다 자기들 마음 편해지려고 그러는 거다.

잠시 그 생각을 하니 정신이 바짝 들었다. 20여년 키워주고 40여년간 되돌려 받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뿌린대로 거두기만 하면 다행이지. 그 이상일까 봐 두려운 거다. 우리 세대는 부모는 책임져야 할 것 같고, 자식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허황된 망상같은 자기는 죽어 장례까지 스스로 책임 져야할 시대에 살고 있다.

부모가 아침에 호미 들고 나가면 호미를 쥐어 주고 힘들어 밤에 예고예고 몸이 쭈신다고 하면 주물러주는 것이 효도지 힘들다고 할 거면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게 효도가 아니란다. 그냥 그때 그때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 주고 힘들지만 지켜봐 주고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게 좋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 거 같다.

내가 늙었을 때 우리 애들이 나에게 예쁘게 말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실컷 하게 잔소리하지 않는다면 나는 좋을 것 같다. 우리는 이 세상에 성공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경험하려고 태어났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행복한 경험 즐거운 경험을 많이 하고 가도록 내가 먼저 지켜봐줘야겠다 다짐해 본다.

(kseo70@qq.com)

## 연세수학

# 가을학기 개강

**NEW 국제학교 수학GPA관리 클리닉 개설**

- 대상 : 국제학교 G7-G10 재학생
- 목표: 수학GPA 만점 / 레벨업
- 내용 : 코스상담 / 숙제해결 / 시험대비

한국수학	국제학교 수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교 6학년</li> <li>• 중학교 전과정</li> <li>• 고등수학 상, 하, I, II, 미적분</li> <li>• 상해한국학교 내신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B Mathematics HL/SL</li> <li>• AP Calculus AB/BC</li> <li>• AP Precalculus</li> <li>• AP Statistics</li> </ul>

wechat | shysmath      문의 | 185 1214 1580

## 2024년 가을학기

# 주니어 정규수업

- 레벨별 수업
- PRIMER • PRIMER PLUS • INT-A • INT-A PLUS • INT-B
- 수업내용
- 에세이 outline 교정부터 full essay 첨삭 / rewrite 진행
- 크리티컬 리딩 + 아카데미 라이팅
- 문법 이론 / 문제 풀이 + 스피치 / 스피킹

칸 아카데미  
G2-12 레벨테스트  
및 가을특강 신청

위챗 shanghaiKan | kaneducation.com | 구베이 완커광장(북) 705호